

## 협회 소식

### 2006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최



협회는 지난 6월 26일 서울 논현동 2층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이방주 회장을 비롯한 이응구 수석부회장(대림산업(주) 부회장), 신훈 부회장(금호산업(주) 부회장)과 회원사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가졌다. 이날 임시총

회에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에 부의된 정관 변경의 건을 상정해 참석회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6월 16일 제3차 이사회에서 회장이 임기 중에 승진 등의 사유로 인해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는 경우 협회의 회장직도 동반 사임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조직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잔임기간 동안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잔임기간이 차기 정기총회 개최시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직을 유지토록 수정 의결해 임시총회에 부의한 바 있다.

### 제3차 이사회 개최



협회는 지난 6월 16일 경기도 용인 레이크 사이드CC에서 이방주 회장을 비롯한 신훈 부회장(금호산업(주)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정관 변경과 임시총회 개최 건을 상정했다. 정관 변경 건은 회장이 임기 중에 승진 등의 사유로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경우 협회의 회장직도 동반 사임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

을 거쳐 잔임기간 동안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되, 잔임 기간이 차기 정기총회 개최 시기를 초과할 경우에는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직을 유지토록 수정 의결했다. 임시총회 개최 건은 정관 변경을 위해 오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 이방주 회장, '2006 건설의 날' 기념식 참석

신훈 금호산업 부회장 공담산업회장 등... 124명 훈·포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권홍사)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새로운 도약,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산업!' 이라는 주제로 '2006 건설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건설유공자 124명에 대해 훈·포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명숙 국무총리,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권홍사 건단련 회장, 이호웅 건교위원장, 이방주 한국주택협회 회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유관기관장, 건설업계 임직원 등이 참석하면서 한명숙 국무총리는 치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국토균형발전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건설산업이 다시 한번 우리 경제의 견인차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산업 신훈 대표이사 부회장과 삼대양개발의 정장을 대표이사가 해외 건설수주 확대와 건설기술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금담산업훈장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업훈장 9명, 산업포장 4명, 대통령 표창 7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등 정부 포상 28명과 건교부장관 표창 100명 등 건설 관련 각 분야에서 공헌한 124명이 포상을 받았다.

## 회원사 소식

### 현대산업개발, 임원 인사

부회장에 이방주 사장, 대표이사 사장에 김정중 건축·영업·상품개발 사장 선임



이방주 부회장

김정중 사장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23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방주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 인사하는 한편, 대표이사 사장에 김정중 건축·영업·상품개발담당 사장을 선임했다. 이방주 부회장은 1999년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 후 현대산업개발을 국내 건

설업체 중 최우량의 재무구조를 갖춘 우량기업으로 정착시켜 왔으며, 김정중 사장은 1977년 현대산업개발에 입사해 29년간 기술연구소장, 건축본부장, 영업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과거 현대아파트를 비롯한 IPARK의 건설을 주도해 왔다.

### '건설업체 우수혁신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대상 롯데건설, 금상 삼상물산·현대건설 등 수상



롯데건설이 2006년 5월 29일 '건설업체 혁신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국내 건설업체로는 처음으로 도입한 '건설조달 프로세스의 완전 온라인화'로 대상을 수상했다. 논현동에 위치한 건설회관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권홍

사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장 등 건설업계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상인 롯데건설을 포함해 우수 사례 12건이 시상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건설업체의 경영 및 기술 혁신, 상호 협력에 대한 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해 전 건설업계에 확산시켜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롯데



'건설업체 우수혁신사례 경진대회' 수상자

| 구분  | 업체명         | 혁신부문   |
|-----|-------------|--------|
| 대상  | 롯데건설(주)     | 상생협력부문 |
| 금상  | 삼성물산(주)     | 경영혁신부문 |
|     | 현대건설(주)     | 상생협력부문 |
| 은상  | (주)포스코건설    | 경영혁신부문 |
|     | GS건설(주)     | 기술혁신부문 |
|     | (주)삼안산업     | 기술혁신부문 |
| 동상  | 대림산업(주)     | 고객만족부문 |
|     | 신광협스건설(주)   | 고객만족부문 |
|     | 롯데건설(주)     | 기술혁신부문 |
|     | 현대건설(주)     | 기술혁신부문 |
| 장려상 | (주)대우건설     | 경영혁신부문 |
|     | 한국에이비엠건설(주) | 기술혁신부문 |

건설이 '건설조달 프로세스의 완전 ON-LINE화'로 연간 43억 원의 비용 절감과 획기적인 업무처리 시간 단축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건교부는 이번 '건설업체 우수혁신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사례에 대해 '건설업체 우수혁신사례'을 발간·보급해 건설업체의 혁신 학습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해마다 개최해 혁신 분위기를 전 건설업계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림산업,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남산공원에서 환경 정화 활동 벌여



대림산업(대표이사 이용규) 임직원 및 가족 등 300여 명은 지난 3일 제11회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서울 남산공원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벌였다.

대림산업은 이날 행사에서 수목 보호활동, 잡초 제거, 배수로 정비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특히 임직원 자녀 50여 명도 직접 참가해 엄마, 아빠와 함께 '환경 정화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4월 본사 및 전국의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맑은나눔 봉사대'를 창단한 이후,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9개 권역에서 관할 지자체와 연계해 '산 1천 1거리 가꾸기' 행사를 격월로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26일에도 서울숲, 한라산, 태백산, 팔공산, 오산천 등지에서 대규모 환경 봉사 활동을 펼친 바 있다. 대림산업 관리본부 최재신 부사장은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곧 우리의 생존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대림산업은 앞으로 맑은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감과 동시에 환경 보호 활동과 관련된 윤리강령의 준수에도 더욱 힘 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MS와 유비쿼터스 아파트 전략적 제휴

유비쿼터스 아파트 전용 '하우징프레임워크' 공동 개발키로

빠르면 내년부터 사용자 중심의 'U-APT' 보급 가능

국내 건설업계의 리딩 컴퍼니 삼성물산과 세계 최고의 IT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완벽한 유비쿼터스 아파트 구현을 목표로 손을 잡았다.

삼성물산은 25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이상대 사장과 마이크로소프트 스티브 발머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간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사용자 중심의 디

지털 홈 라이프스타일의 제공을 목표로 유비쿼터스 아파트 전용 '하우징프레임워크'를 공동 개발키로 했다.

이번 제휴는 최근 아파트에서도 유비쿼터스 기술이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비쿼터스 아파트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각각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사용자 중심의 홈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하우징프레임워크'의 제공 목표 유비쿼터스 아파트 전용 '하우징프레임워크'는 상호간의 디지털 전자기기들이 서로 호환될 수 있는 커넥티비티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실질적인 주거 환경의 유비쿼터스 시대를 앞당기게 한다.

이를 위해 양사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기술 협력 ▲향후 국내 및 전세계 시장에서의 공동 마케팅 협력 ▲유비쿼터스 아파트 전용 '하우징프레임워크' 공동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새로운 홈 라이프스타일 구축을 공동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하우징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PC에 표기되는 'Intel Inside'처럼 유비쿼터스 아파트 시스템과 제품에 '하우징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을 입증하는 로고 제도를 운영해 사용자 중심의 유비쿼터스 아파트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현대건설, 창립 59주년 기념 '나눔의 경영' 노인 2000명 점심 대접... 서산미 전달식도



현대건설(대표이사 이종수)이 지난 25일 창립 59주년을 맞아 서울 경운동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 2000여 명을 초청해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이종수 사장 내외를 비롯한 임원 내외 26명과 현대건설 주니어보드, 현지회 등

자원봉사자 90여 명은 이날 현대 서산농장에서 생산된 쌀로 지은 쌀밥과 시루떡을 직접 배식했으며 서산미 10kg들이 200포대도 전달했다.

이 사장은 이날 행사에 대해 "창립기념일과 가정의 달을 맞아 노인들께 현대건설 서산농장에서 생산된 쌀로 따뜻한 정성을 대접하고 싶었다"며 "현대건설은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에도 종로 지역 주민 200여 명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고 서산미 2400포대를 관내 저소득 계층에 써달라며 종로구청에 전달했으며, 12월에는 임직원 100여 명이 독거노인 205명의 집을 방문해 쌀과 전기 매트를 전달했다. ☺